

# 요코하마시의 국제교류협력 경험과 방향

세키야마 마코토 국제정책실장  
ki-kyoryoku@city.yokohama.jp  
요코하마시 정책국

196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해 온 국제교류와 달리 요코하마시의 기술협력은 2010년대 초반부터 수행하기 시작하여 비교적 역사가 짧아 아직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요코하마시의 견해이다. 하지만 이제 해외 도시와 기술협력을 시작한 서울시에게 요코하마시는 도시 간 교류 협력의 선구자이자 중요한 네트워크로 이들의 발걸음을 꾸준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요코하마시의 국제 기술협력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방재, 상하수도 인프라 관리, 자연환경보호 등 기술적 강점을 보유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해외 도시와의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제기구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유치된 국제기구 본부를 기술협력에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 1. 국제도시로서 요코하마시의 역사

요코하마시는 일본 도쿄 대도시권 남부에 있는 도시로 가나가와 현의 현청이 위치해 있다. 인구는 약 370만 명으로 인구수로는 일본 내 2위, 경제규모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57년 전에 개항한 이후로 일본 유수의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해왔으며, 공업도시와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도쿄의 교외주택지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림1 일본 내 요코하마 위치



자료 : <https://kbenglishsla.wikispaces.com/Yokohoma,+Japan>

요코하마시는 과거부터 지방 자치단체로서 국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특성은 요코하마시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코하마시의 발전은 185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전까지 200년이 넘도록 서방에 문을 닫고 있던 에도막부(당시의 일본 정부)는 이때 요코하마를 포함한 몇몇 항을 처음으로 개방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요코하마시는 100가구 정도가 살던 어촌에서 일본과 서방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 중 하나로 발전하여 국가의 근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 점차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는 국제 무역항으로 자리 잡아 거리에는 이국적인 정서가 풍기게 되었고, 시민들은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기질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시민과 지자체 모두가 '요코하마는 국제도시'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요코하마가 도시로 성장한 역사적 배경 자체가 요코하마시 국제교류협력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요코하마시의 또 다른 특색은 이 도시가 많은 도시과제를 극복하면서 급속히 발전해왔다는 점이다. 개항 이후 157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히, 1909년 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126년의 역사 동안 요코하마시는 관동대지진, 제2차

그림2 요코하마시 도시 발전 모습(왼쪽부터 차례대로 1858년, 1930년, 현재의 모습)



자료 : <http://www.travelyokohama.com/>; <http://www.city.yokohama.lg.jp/>

세계대전 중의 공습, 전후의 중심 시가지 점수와 교외 지역의 난개발 등 많은 과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급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공유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 2. 요코하마시의 국제정책 및 국제협력활동의 발전

요코하마시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도시의 성립 단계부터 ‘국제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국제적 교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1957년에 미국 샌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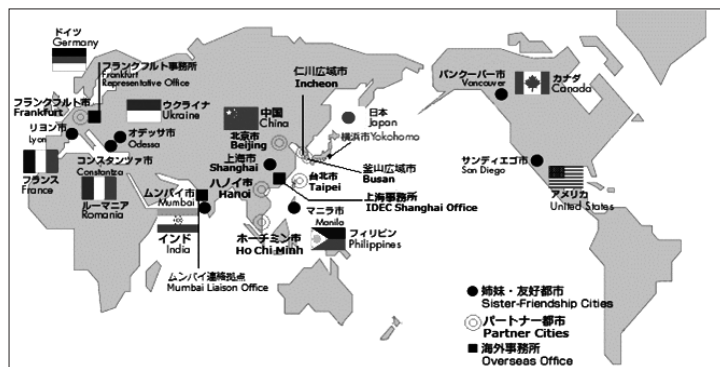
고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하고 1962년에 독일 함부르크시에 주재원사무소를 개설(이후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처음에는 문화·시민 교류가 중심이었지만 점차 그 연결고리를 통해 경제와 기술 교류로도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자매우호도시 8개를 포함해 총 18개의 도시와 일대일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요코하마시의 노력은 국제협력 활동으로 전개되었는데 1973년에 수도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전문직원을 파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수도 분야의 직원 파견과 수용을 통해 국제공헌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더욱 광범위한 도시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은 1982년에 요코하마시가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유엔해비타트(UN-HABITAT : 유엔 인간거주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회의(YLAP)가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인간의 거주 환경 개선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효과적인 연계,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협력 추진의 필요성이 공유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년 후인 1987년에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회의(N'LAP)에서 시티넷(CITYNET: 아시아·태평양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이 설립되었다. 시티넷은 해당 지역의 도시 문제를

그림3 요코하마시 협력도시 현황



### 요코하마시의 교류협력 도시

- 자매우호도시(8개 도시)  
샌디에이고(San Diego), 리옹(Lyon), 뭄바이(Mumbai), 마닐라(Manila), 오데사(Odessa), 밴쿠버(Vancouver), 상하이(Shanghai), 콘스탄차(Constanta)
- 파트너 도시(7개 도시)  
베이징(Beijing), 타이베이(Taipei), 부산(Busan), 호찌민(Ho Chi Minh), 하노이(Hanoi), 인천(Incheo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 해외 오피스(3개)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뭄바이(Mumbai), 상하이(Shanghai)

자료 : <http://www.city.yokohama.lg.jp/kokusai/>

그림4 요코하마시의 국제협력 활동의 발전 방향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문화, 시민교류 중심	국제공헌추진	지자체, NGO간 협력	국제기구 유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샌디에고시와 자매도시 결연</li> <li>- 주재원 사무소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가니스탄에 전문직원 파견</li> <li>- 수도 분야의 국제 공헌사업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 2회 아시아 · 태평양 도시회의 개최</li> <li>- 시티넷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센터, UN식량농업기구, UN세계식량계획 일본사무소 등 유치</li> </ul>

자료 : <http://www.city.yokohama.lg.jp/kokusai/>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요코하마시는 1989년부터 시티넷의 초대 회장도시였으며, 1992년부터는 사무국 설치도시가 되어 활동을 이끌어왔다. 구체적으로 방재, 상하수도, 환경정책,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전문직원을 파견하고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해왔다.

1980~90년대부터는 이런 활동과 함께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개발된 도심부의 '미나토 미라이21지구'에 요코하마 국제협력센터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본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일본사무소 등을 유치하였다.

시티넷을 통한 활동 외에도 시정부의 각 부문이 독자적으로 상하수도, 항만, 쓰레기 처리,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원을 파견하고 연수를 진행하는 등 요코하마시는 국제협력 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 3. 최근의 동향과 조직체제

최근 몇 년은 요코하마시의 국제협력 활동이 새로이 변모한 시기인데, 요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요코하마시와 시티넷의 연계가 달라진 점이다. 요코하마시는 약 20년 동안 회장도시이자 사무국 설치도시로서 시티넷의 활동을 견인해왔지만, 2013년부터는 한국의 서울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대신에 요코하마시는 '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오피스'를 같은 해 개설했다. 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오피스는 소규모지만 국제협력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시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한편, 시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오피스(2013년 설립)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국제조직인 '아시아태평양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 시티넷(CITYNET)'의 일본 활동을 위해 2013년 설립
- 국제협력사업을 기획, 실시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연수 개최를 통해서 시티넷 회원 도시 및 다른 단체와의 지식, 경험, 기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각 도시가 가진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오피스 스태프

- 소 장 : 이사이 요이치(石井洋一)
- 기획과장 : 가와사키 타로(川崎太郎)
- 사업과장 : 히라타 켄드라(平田ケンドラ)
- 사업보좌 : 오오타케 사치코(大竹幸子)
- 사업보좌 : 타카미야 유코(高宮優子)

#### ● 사업 및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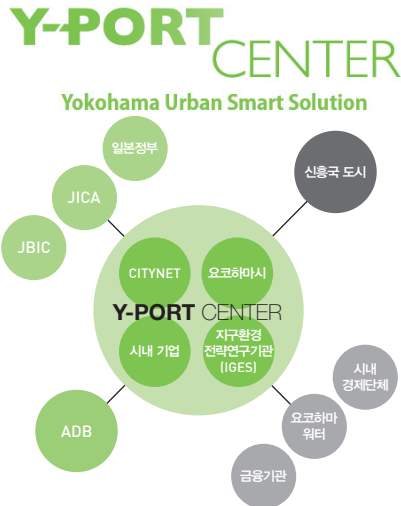
- 커뮤니티 방재추진사업(Community Based Adaptation and Resilience Against Disaster, CBARAD)
- 초중교육 교원연수사업
- 시티넷 방재 클러스터 분과회의 운영
- 시티넷 온라인 방재 연수 플랫폼(CITYNET Platform for Disaster Resiliency, CPDR) 운영
- 스리랑카 콜롬보시(Colombo)와 골시(Galle)의 환경교육사업

자료 : <http://www.citynet-yh.org/jp/>

현재 요코하마시와 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오피스는 방재분야의 도시 간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에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시티넷 25주년 세미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9개 도시와 함께 방재대책을 추진하는 '요코하마 아젠다'가 선언된 이후로 요코하마시는 시티넷 방재클러스터의 의장 도시가 되었고,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방재 클러스터의 세미나 개최, 방재분야의 e러닝 운영, 필리핀 일로일로시 커뮤니티 방재추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JICA는 일본정부의 공적원조(ODA) 실시기관으로 국제협력의 중심에 있다. 요코하마시는 2002년에 JICA 요코하마 국제센터(지부)를 개설하고 JICA와

그림5 Y-PORT 사업과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계




자료 : <http://www.city.yokohama.lg.jp/kokusai/yport/pdf/yportcenter.pdf>

연계를 강화해왔다. 201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포괄연계협정’을 체결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연계하고 있다.

이전부터 추진해온 기술협력 및 인재육성을 위한 요코하마시와 JICA 쌍방의 인재 교류 또한 훨씬 더 확대되고 있다. 또 시내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관민연계기법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간 협력(Y-PORT)사업과 요코하마시와 해외의 여성 창업가 간 교류, 방재분야의 국제협력 등도 협정 체결을 전후해 시작되었다. 시티넷 방재분야의 도시 간 협력에서도 JICA는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다. 한편, 2008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요코하마시에서 개최된 아프리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연계·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 4. 결론

요코하마시의 국제협력경향을 정리해보면 첫째, 도시 간 네트워크(시티넷)의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JICA 등 다양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와도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 시내 기업의 국제협력 참여를 통해 시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시내로 효과가 환원되는 사업이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다. 시청 내의 조직체제도 달라졌다. 요코하마시는 이제껏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담당 부서가 세분되어 있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2015년 4월부터는 시티넷 사업과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진행하는 부서와 관민연계를 통한 기술협력(Y-PORT)을 추진하는 부서가 합쳐져 하나의 부서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로써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의 국제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기술협력 사례

요코하마시의 기술협력 사례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JGS Corporation, JFE Engineering Corporation, Chiyoda Corporation, HITACH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JICA와 협력하여 실시한 기술협력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 1) 커뮤니티의 방재능력 향상 지원 (필리핀)

요코하마시 정책국은 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오피스와 함께 ‘필리핀 일로일로시의 커뮤니티 방재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티넷의 회원도시인 일로일로시는 여러 개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지형을 가지고 있어 태풍과 호우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홍수로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 일본의 ODA로 방수로가 완성되면서 피해는 줄었지만, 여전히 강 근처에 자리한 커뮤니티의 피난체제 확립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일로일로시의 요청을 받은 요코하마시는 2012년부터 3년에 걸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요코하마시의 소방·위기관리·위생분야 전문직원과 하천의 환경교육, 방재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NGO에서 자료를 받아 피난 매뉴얼 및 홍수 해저드 맵을 작성하고, 피난훈련, 하천 환경개선과 환경교육을 했다. 이 사업은 일로일로시 정부뿐만 아니라 바랑가이라는 지역 커뮤니티 및 대학과 함께 실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그림6 일로일로시 방수로 공사



자료 : Climate “Changes” the Development Agenda? - JICA/JBIC Experiences 12p

## 2) 야생생물 보호 관련 지원(인도네시아 · 우간다)

요코하마시는 일본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은 세 개의 국립동물원을 가진 도시로 동물의 사육과 번식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서부 발리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땃기흰찌르레기의 개체관리와 환경교육을 통해 땃기흰찌르레기의 야생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땃기흰찌르레기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 지역주민과 협동해 보전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에는 현지에서 보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시의 환경창조국과 동물원을 관리하는 요코하마시 미도리 협회가 2008년부터 '우간다 야생생물 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간다의 유일한 동물원인 우간다 야생생물교육센터(UWEC)에 야생동물의 사육 번식, 수의사 진료,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기술협력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덕분에 수의사의 진료기술이 향상되었고 동물원 내외에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 요코하마 번식센터

(横浜市繁殖センター, Preservation and Research Center[PRC], The City of YOKOHAMA)



**横浜市繁殖センター**

Preservation and Research Center, The City of YOKOHAMA

希少動物の保全および繁殖を通して、地域から地球規模の生物多様性の保全に貢献します。

- 설립연도 : 1999년 4월
  - 설립목적 : 멸종위기 동물의 사육 및 연구
  - 연구내용
    - 1) 말레이언 테이퍼(Malayan tapir), 땃기흰찌르레기(Bali mynah), 대머리 아이비비스(Waldrapp ibis), 카구(Kagu) 사육
    - 2) 멸종위기 동물의 유전자, 성호르몬, 생식세포 연구
  - 국제적 활동내용
    - 1) 뉴칼레도니아의 수드지방과 함께 카구 보존에 대한 교환사업(Interchange business about Kagu Conservation with Province Sud of New Caledonia)
    - 2) 땃기흰찌르레기 보존프로젝트(Bali Mynah Conservation Project)
- 자료 : <http://www.city.yokohama.lg.jp/kankyodousyoku/center/laboren.html>

## 3) 상하수도 기술 관련 지원(베트남)

요코하마시는 1887년에 일본 최초로 근대 상수도를 설치한 도시로서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요코하마시가 가장 먼저 국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도 수도분야이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수도국이 2003년에 시작한 베트남 쉐시에 대한 협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사업의 기술 및 경영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협력한 결과, 2009년에는 수도꼭지에서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해당 기술을 쉐시 주변의 베트남 중부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하수도분야에서도 환경창조국이 2014년에 베트남 하노이시와 기술협력을 시작했다. 이는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 슬러지 처리 · 침수대책 등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림7 누설감지 기술에 대한 강의 모습



자료 : Cooperation of YOKOHAMA Waterworks Bureau for Thua Thien Hue Province, Vietnam, Hisashi TAIRA, 9p